

정신못차린 '요양병원' 감찰한다

행안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 실시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등 위법사항 209건 적발
불법 요양병원·시설 관계자 48명 형사고발
부실 설계한 건축사 13명 징계 등 행정처분
인·허가 처리 소홀한 공무원 16명도 문책
스프링클러 미설치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무단증축과 피난시설 훼손 등 요양병원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곳·요양시설 70곳)에서 총 209건의 건축·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법사항 209건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허가 부실은 61건, 형식적 안전점검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

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총 4652개소 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이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

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원)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적발됐다.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이 29개소에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1408개소 중 287개소에서 불법건물이 발생했다. 이중 31개소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고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허가없이 철거하고 화재시 피난 경로인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마감하거나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금장치 하는 등 총 74개 시설에서 135건의 시설물 유지관리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점검업체가 요양병원 등 소방시설 점검에서 자동 화재속보설비가 작동되지 않는데도 확인하지 않거나 자동화제속보설비

전원이 꺼져 있음을 알고도 건물주에게 구두로만 설명하는 등 총 13건의 형식적 점검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무단증축 등 불법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총 48명을 형사고발했다. 또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을 징계 등 행정처분하고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16명도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히 처벌하는 제재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화재가 발생하면 경우 소방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노인 등 환자들이 임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시설의 최소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까지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뉴스

모의평가 국·영·수 모두 어려웠다

평가원,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발표
작년 수능보다 표준점수 최고점 ↑

7일 실시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인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난이도가 크게 상승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지난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보다 6점 높았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 표준점수 최고점이 오르고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떨어진다. /뉴스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이용 증가

내 주변의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지난 1월31일부터 8대분야 전국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후 이용률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월 대비 2.5배 늘었다. 8대분야는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형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사고안전 등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성폭력, 폭력, 강도 등 치안사고 발생 현황(52만9037건), 등·하갯길 교통사고 주의구간(4만9939건), 지진 발생 이력(3만9694건), 치안사고 통계(3만2671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내 주변 안전시설 정보 이용현황은 편의점(1만5819건), 병·의원(1만1551건), 소방시설(7103건) 등을 주로 조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

과학교육정책 토론회

오늘 오후 2시부터... 180명 참석
과학담당 교원·교육전문직 등

현장중심의 전북과학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전주 라투레 웨딩홀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초·중·고교 과학교육 담당 교원, 교육전문직 등 180명이 참여해 학생과 학교가 원하는 과학교육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먼저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기술 이해를 위해 '36.5도의 과학기술, 적정기술'을 주제로 과학전문가의 특강이 있고 그 후 전북 과학교육 정책 및 전북 과학교육원 운영 사업 등에 대한 안내가 있게 된다. 이어 발전적인 과학교육을 위한 전북 과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분임 토의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교가 원하는 과학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참석 교원들도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학교육 정책과 시대 상황에 따른 과학교육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가 하계 방학에 외국인 및 한국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발대식.

전북대서 외국인과 한국 학생 문화로 교류한다

국제청소년리더교류사업 일한 2주간 교류 진행

지난 5월 여섯가족과 한국청소년 교류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계 방학에 외국인 및 한국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학생 40명과 한국학생 40명 등 모두 8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5일 발대식을 갖고 오는 7월 6일까지 2주 동안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탐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비발방체험, 태권도체험, 체육대회 등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개별 팀 별로 문화탐방을 자율적으로 떠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팀별로 한국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과제도 수행할 계획이어서 학생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25일 열린 발대식에서 참가자들 중 외국인 유학생인 진주영(전북대 영어영문학과) 학생이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선택했다. 발대식에서 이형우 전북대 국제협력처1부부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깊이 있는 한국문화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티움 활동단' 역량 강화 교육

이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청소년 활동가인 티움 활동단 역량 강화를 통해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야호학교는 청소년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현재 1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전주시는 27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야호학교 다목적실에서 야호학교 티움 활동단 2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일선에서 전주형 창의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팀별 길잡이 교사인 티움 활동단의 마인드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송호철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위익계층 맞춤형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원보급	5,733,677,999
...	...